

신행수첩

'깨달음을 향한 정진' 통도사 철야법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태응)가 재가 신도들을 위한 큰마당을 마련했다.

조계종 종정 일화스님과 일반재가신도들의 요청에 의해 기존 보살선원을 확장, 10월부터 철야 정진법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수행도량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진의 모든 불자에게 개방되는 철야정진법회는 매일 불제주, 넷째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시작,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다. 17일부터 3개월간 계속된 결재정진은 참선법문을 통해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0523-82-1181)

불법이 자연, 자연이 불법 부산불교산악회 산행

'불법이 자연이고 자연이 불법'인 이치를 깨달은 탓일까 부산불교산악회(회장 안기천)는 13일 불법을 찾아 열현 은해사로 12차 가을 산행을 떠났다. 은해사 주지 일타스님의 법문과 팔공산 인봉의 경관은 산행에 참여한 모든 불자들을 진정한 불법속의 삶으로 안내할 전망이다. (051-464-2020)

인종을 초월한 불심 외국인 노동자 법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경정연·회장 율주)은 오는 20일 총재종 정포교원(원장 법봉)에서 외국인노동자 법회를 병행한다.

외국인노동자법회는 지난 1월 서울 구의동 영화사에서 개최된 이후 매월 셋째주에 정기적으로 병행해오고 있으며, 네 팔 리벳 미안바 등에서 온 의

국인 노동자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법회 후에는 점심공양 및 한국불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화엄의 찬란한 세계로 22일 고은씨들 강연

화엄의 찬란한 세계로 안내하는 강연회가 열린다. '입법계품'의 선재동자 구도기와 '삼귀의'가 실려진 화엄경은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경전이다. 그러면서도 내용의 장황함과 방대한 분량으로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경전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오는 22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무비스님과 시민 고은씨가 '화엄경, 화엄사상이란 무엇인가' '화엄경의 문학세계'를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선다.

이 강연회는 무비스님 완역편찬 (화엄경)출간기념으로 도서출판 인복사(대표 윤재승)가 마련, 부산지역 강연회도 준비하고 있다.

탄허재단 10월 잔치 화엄·열반경 대강좌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재)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 전정렬)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연다.

탄허재단은 5일과 11일 각각 화엄경 대강좌와 열반경 대강좌를 개강해 교리적 접근이 쉽지 않은 일반불자들을 맞이한다.

이외에도 화엄경 5차 백일기도 입재 및 수계자 접수중에 있어 많은 불자들은 다양한 불교신앙의 시대를 맞게 됐다. 12일 오후 3시반 삼일불교교 육원 각성스님은 서울 삼일선원에서 '율리도덕과 화엄사상'

강좌를 통해 불교와 율리도덕과의 함수관계를 정리한다.

또한 20일 오전 10시 대전 삼광사서는 각성스님과 동국대 정병조 교수가 대전 불자들을 위해 강연을 펼친다.(237-4438)

한민족 뿌리를 찾는다 9일 '다보문화강좌'

삼국시대 발기의 우리민족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자리를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이 마련했다.

진흥원은 매일 실시하는 다

보문화강좌를 오는 9일 오후 2시 불교방송 공개홀에서 '달에 있어서의 고구려 유민과 신라인의 활동'이라는 주제로 제44회 강좌를 갖고 한민족 뿌리찾기에 나섰다.

'팔정도' 새롭게 해석 13일 반야정사서

'불교교리도 시대에 맞는 의미로 담아 보자' 반야정사(주지 석우)는 13일



오전 10시30분 한양대 민회식교수초청 '팔정도의 현대적 해석과 기독교와의 비교'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선보인다. 이번 강연은 경직된 교리해석과 불교간의 가치추구를 벗고 타종교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유연한 사고의 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여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참석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3491-8834)

꽃피는 청소년 문화 삼전복지관 어울마당

삼전복지관(관장 보각)은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복지관 강당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다. 청소년들에게 여가시간 활용을 통한 문화조성 및 놀이문화 체험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마련되는 이번행사는 기탄없이 주축되어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연합행사를 통해 단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각 반별 합창 공연, 댄스, 대중음악 발표회와 함께 사진반의 사진전시회가 프로그램실에서 전시되며 당일 설명회도 갖는다. (421-6077)

역사 현장 찾는 동심 굴렁쇠어린이 국토순례

깊어만 가는 가을, 이 늦가을 자욱빛 길가를 따라 어린동심들이 역사유적지를 찾아 떠난다.

어린이 종합 교양잡지 <월간 어린이굴렁쇠>(발행인 김형균)는 제 32차 굴렁쇠어린이 국토순례를 마련, 13일 춘천 청량사를 찾는다.

서울을 출발, 기차를 따라 소양방까지 배낭따라 충령사를 찾게 될 <굴렁쇠어린이>국토순례는 청량사 회전문(보물 164

호), 3층석탑(일명 공주탑), 진락공부도, 한적당부도 등의 역사를 현장을 보게 된다. (277-2676)

정담스님 사경 전시회

정담스님의 대장경사경 글서 전시회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의 일정으로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정담스님은 손글씨강경 10폭병풍과 8폭병풍을 사경작품을 내 놓았다. 사경이란 경전을 필사하여 소망을 빌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방법으로 최근들어 많은 사찰에서 시행하고 있다. (723-4082)

부처님 또한분 모서 13일 영월 삼대사

강원도 영월 삼대사(주지 시용)가 13일 오전 10시 또 한분의 부처님을 모신다. 영월내 불자들은 건평 1백 41평의 전통양식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진 삼대사에서 새로이 불심을 키울수 있게 됐다. 내년 불음 법당이 완공되면 일상과 불심이 함께 할 수 있어 영월을 불자들의 신심을 더욱 설레게 한다.

나의 수행일기

민희식 <한양대 교수>

지금도 강연때문에 전국각지를 다닌다. 지방강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내가 동반자가 되곤한다. 강연을 마치고 그 지역의 사찰을 참배하기 위해서이다.

언젠가 익산의 왕궁리 오층 석탑을 찾은 적이 있다.석탑 앞에 섰을 때가 석양무렵이었다. 얼마나 늦을 줄 알고 바라 보았을까. 문득 탑주위에 동그런 후광이 있음을 발견했다. 석양빛을 받은 후광의 찬란함은 그대로가 불국토였다. 그 빛은 천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찾아와 기도한 기운이 모이고 모여 나타난 것이었다. 그날 나 역시 지그마한 정성으로 원력하나를 탐취에 얽어 놓았다. 그 인력은 바로 35년전에 만난 작은 인연에서 시작된 것이다.

35년전, 프랑스에 유학간 후 프랑스 문화를 공부하던 중 놀랄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대화도 서관에서 중세기의 프랑스 문학에 관한 책을 읽던 중 부처님이 기독교의 최초의 성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내가 읽은 작품은 <성 바리르

1440년 서양에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이래 서사가 번역되고 1473년에는 스트라스부르에서 뱀상 드 보베가 <역사의 구감>이라는 책을 발행하였는데 <성 조셉전>도 그안에 포함되어 있다. <성 조셉전>이 부처님의 전기라는 것은 유럽인의 관심이 동양에 쏠리고 난 이래 동양과 교섭을 갖게 되자 부정할수 없게 되었다. 17세기에 포르투갈의 역사가 디에고 두 톨레가 이집트를 처음 지적하였고 1859년에 프랑스의 코레주 드 프랑스의 총장이었던 에드워드 드 라블레가 유트나르 드 데바지에 논문을 발표하여 이집트를 확인하였다. 이집 하나만 보더라도 카톨릭의 가르침에는 얼마나 불교의 뿌리가 깊은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프랑스문학에 대한 연구가 불교와 무척 밀접한 것은 이러한 연구의 인연에서 오는 것이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불교와 서구사상> <법화경과 신약사서> <성서의 뿌리> 등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예수가 마티아스 스님 밑에서 수행한 스님

이었다는 사실에 모두를 의아해 했다. 그러나 포루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었다. 충분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의 협박성 항의와 편지를 받기도 했다. 서양역사에 대한 인식부족의 결과였다. 같은 타종교인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불교에 귀의하기도 했다. 이후 '예수는 부처님의 제자였다' '부처님과 성경' 등의 책이 나와 최근까지 전종교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것으로 안다. 언젠가 그동안 모든 차이를 종횡지해 또 봐도 낼 것이다.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부처님 생애'와 '조셉전'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하여튼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하기를 바란다. 이타사상을 실천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나에게 있어서는 인류의 구제를 위한 가장 뛰어난 종교라는 것을 마음속깊이 느끼게 되어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의 뿌리가 되어왔다는 점에서 내자신 자부심과 함께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

35년전 「성 조셉전」이 불교로 인도해

모와 성 조세파전)이다. 이 회람어의 텍스트는 기원 8세기에 다마스카스의 성 요한이란 학자가 쓴것이다. 그는 회교국의 제상이었으나 기독교로 귀의하여 에르사렘의 사바스 수도원에 묻혀 이리스트르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신앙이론을 세웠다. 그가 쓴 '부처님 전기'는 인도에서 중세 페르시아어로 번역된후 다시 시리아어로 번역된것을 바탕으로 회람어로 쓴 것이다. 이 <부처님 전기>는 11세기에 라틴어로 번역되기가 무섭게 급속히 유럽에 퍼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북유럽까지 번졌다. 이 <부처님 전기>는 중세 프랑스어로 쓰여진것만 해도 13세기에는 5편이나 된다. 16세기에 카톨릭교회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에 대항하여 수도원을 옹호하기 위하여 신앙의 근거로서 이 작품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의 최초의 성인의 날로 카톨릭에서는 11월 27일을 조셉(부처님)의 날로 정하였다. 성자의 날이란 성인이 천국에 탄생한 날 즉 이세상을 떠난 날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매년 그날에 해당되는 성인에게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다.

통일대탐 상륜부 올리며 사경봉안 20일 삼선포교원 친전 보탑사에서

'맑은 하늘을 우러러 사람들이 쌓아 올리는 정성입니다' 충북 진천군 보현산에 건립 중인 삼선포교원 보탑사(주지 지관) 상륜부의 말이다. 이처럼 오늘의 불자들이 정성을 모아 신라 왕릉사 9층탑이후 1천3백여년만에 높이 1백26척, 약 42미터의 통일대탐을 세우고 있다. 오는 20일 오전 11시에는 탐의 상륜부를 올리면서 해원결건연을 사경하여 봉안한

다. 이날 법회로써 지난해 5월에 착공된 통일대탐의 외형이 갖추어지게 된다. 삼선포교원은 상륜부내에 봉안할 사경을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오전11시 포교원에서 진행한다. 신도들의 사경은 금은동으로 만든 함에 넣어져 상륜부에 20일 봉안된다. 통일대탐의 준공은 96년 6월이다. 전일기도와 함께 진행중인 보탑사의 탐은 삼선포교원 대중들의 원력에 따라 서서히 완성되어가고 있다



◇ 통일대탐

생활 속의 불교 ④

"열쇠는 세 치 안팎입니다."

아무리 큰 문이라도, 저 덕수궁의 대한문이라도, 잠긴 문을 여는 열쇠는 세 치가 채 못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량보배의 창고도 그렇고, 천국의 문이라도 그렇고, 그것을 여는 것은 손이귀에 잡히는 작은 열쇠 하나입니다. 문제는 열쇠에 있습니다. 문을 활짝 열이 짓하려면 그 열쇠를 손에 넣어야 합니다.

인생살이가 힘들고, 환난과 고통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해도, 그 육중한 문을 밀어젖히는 일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열쇠를 찾아야만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이익을 추구하느라 맘 홀리고 애를 쓰지만, 이왕 이익을 추구할 바에는 세상의 모든 이익을 다 알아버릴 단 하나의 이익, 모든 욕구를 다 뒤덮을 단 하나의 욕구, 그러한 진짜 이익, 진짜 욕구를 좇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지사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진짜 보배창고를 손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보배창고를 여는 세 치 미만의 열쇠, 그것은 불법입니다.

법법의 생활학·번역학·세계학

명신인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 정성으로 대우받길 원하신다면
좀더 신속하게 진행되길 원하신다면
좀더 정확한 결과물을 원하신다면

기획 편집 인쇄 제작

명신인쇄
서울시 중구 예관동 136번지
전화: 267-9468 팩스: 267-9469